

프랑스

생활 속 작은 행복에 위안

올 한해 프랑스 출판의 흐름

최연구

《한겨레21》 파리통신원



올해 프랑스 독자들은 평범하고 소박한 책들에서 작은 기쁨을 얻었다.

올 한해 프랑스 출판계는 별 대작을 낳지 못했던 평범한 한 해라고 총평할 수 있다. 프랑스 출판가의 풍토가 늘 그러하듯이 백만부를 넘어서는 밀리언셀러는 없었으며 평범하고 소박한 책들이 오히려 심심찮게 인기를 누렸다.

미국의 통속작가 메리 허긴스 클라크의 서스펜스 소설이 프랑스에서도 히트를 쳤던 것은 자문화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쿼타들은 프랑스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외국 소설부문에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로의 소설 역시 줄곧 강세를 보여 그래도 프랑스인들은 예술적인 문학을 사랑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프랑스 문학의 경우, 낭시 위스통이나 프랑수아즈 지루 등 기성작가들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한 자리씩 차지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신인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해였다.

특히 시골 고등학교 교사인 신인작가 필립 들레름(Ph. Delerm)의 처녀 에세이집 《첫맥주 한모금 그리고 다른 잔잔한 기쁨들》은 프랑스 출판사에 기록될 만한 화제작의 반열에 올랐다. 소박하고 담담한 문체로 자신의 일상에서 누

졌던 생활 속의 작은 행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각박한 세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주었다.

인문·사회과학 부문에서는 생활철학이나 세계화, 신자유주의, 동양사상 등이 굽적굽적한 담론거리였다. 철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철학자 앙드레 콩트 스펜빌이 예외없이 많이 읽힌 것은 철학에 대한 프랑스인의 지대한 관심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이다. 《소피의 세계》, 《비철학자들을 위한 작은 철학》, 《사랑에 대한 단상》 등 대중용 철학서적들이 늘 인문·사회과학부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것은 분명 프랑스적인 현상이다.

사르트르 이후 가장 민중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석학 피에르 부르디외는 올해에도 진보적인 독자 대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지난해 《텔레비전에 대하여》라는 파격적인 책을 펴내 바보 상자 텔레비전과 일회용 패스트 푸드 철학에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던 부르디외가 올해에는 《맛별》이라는 소재자를 출간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비판에 나섰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신자유주의가 점점 세를 확장하고 있

는 것이 오늘날 유럽 전역의 전반적인 흐름이지만 프랑스만은 그렇지 않음을 올해의 출판 경향이 보

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비판 서적이나 미국의 패권주의 비판, 세계화 비판 서적들은 하나같이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현대 지식인들의 권력지향성을 비판한 알리미의 《새로운 파수견》도 참신한 문제제기로 파문을 일으켰다. 올해는 저항지식인상을 세운 에밀 줄라의 명문 〈나는 고발한다〉가 발표된 지 백주년을 맞는 해라 지식인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성찰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성해방론의 원조 시몬느 드 보바르의 《제2의 성》이 발표된 지 50주년인 올해에 현 프랑스 총리의 부인 실비안 조스팽 여사가 《성의 정치》라는 책을 통해 보바르식 여성해방론에 정면비판을 한

것은 올 출판가의 '대형사건'이었다. 50년전 시몬느 드 보바르는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여성으로 길들여질 뿐"이며 '여성다움'이란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철학자인 실비안 조스팽 여사는 남녀는 발생론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오히려 여성다움을 통해 여성해방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 화제를 모았다. 인문학 부문에서 부르디외·라캉 등 프랑스의 철학자들과 움베르토 에코 같은 유럽 지성인들이 많이 읽혔던 반면 영미권 사상에는 무관심했던 것도 현 프랑스 독서계의 한 특징이다. ◆

독일

나치의 역사 둘러싼 논쟁 뜨거웠던 한해

박진희

베를린 공과대·과학기술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독일 출판사들은 어느때보다 활발히 신간을 펴내고 있다. 크리스마스까지 일년의 '마지막 다섯주'가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연간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다. 출판계 소식지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상되는 책들은 독일 최고의 작가상 '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발저의 《생숨는 우물》(주어캄프)과 올 여름 베스트셀러 《한나의 딸》의 작가인 마리안네 프레드리크스의 《시몬》(크뢰거)이라고 한다. 이 두 권은 《슈피겔》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소설은 공교롭게도 모두 지난간 나치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자신을 투영한 듯한 어린이들을 소설 속 관찰자로 삼고 있다. 프레드리크스의 《시몬》은 유대태생이자 스웨덴으로 입양된 주인공의 이름이다. 유대계는 아니지만 유대인 자식을 기르는 어려운 시기에도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고수하는 어머니를 통해 시몬은 "사랑이란 단지 두려움이 없음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발저의 《생숨는 우물》은 몽상가적 기질이 다분한 아버지와 삶이

주는 무게에 민감한 어머니 사이에서 주인공 요한이 문학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어린 요한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능력자로 낙인찍혔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지닌 아버지가 열어주는 감성의 세계에 눈을 뜬다. 요한에게 나치시대는 공포와 테러가 자행되던 시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한 문학소년이 어렸든 감수해야 했던 시대다. 소설 첫머리에 발저는 이런 이중적인 상황을 이렇게 서술한다. "어떤 것이 지나가면, 그것을 경험했던 인간은 지금 다른 것을 경험하는 인간과는 다르다." 특히 발저의 소설에서 역

사를 바라보는 관조적인 입장은 나치청산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독일 지성계에 뜨거운 논쟁을 가져왔다. 유대인연합 회장인 부비츠는 《샘솟는 우물》의 평화상 수상을 '정신적인 방화'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논쟁에는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까지 참여했다. 작년에 한 미국학자가 '새롭게' 나치의 역사를 해석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경우를 생각하면, 독일에서 나치의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비소설 분야에서는 지난해 말 프랑스에서 나와 올 여름 독일어로 번역출간된 《공산주의의 검은 책》(피피)이 상위권에 진입해 눈에 띈다. 공산주의 테러를 밝힌다는 미명하에 나치즘의 유대인 학살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역사학계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이 미국학자 골드하겐의 《히틀러의 집행자들》과 매우 대칭적인 논쟁의 지형을 그려냈다는 점이다. 《집행자들》의 경우 우파학자들이 골드하겐의 주장 즉, 나치정권의 창출과 유지에 당시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동조행위로 가능했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번에는 좌파학자들이 논쟁의 최전선에 나섰다. 이는 "적색은 갈색(나치즘을 상징하는 색깔)을 퇴치했다"는 좌파의 전통적인 이해와 "갈색테러는 적색테러와 마찬가지로 전역사를 통해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라는 우파의 역사이해를 대변한다.

올 독일 출판계에서는 유럽 최대 출판그룹인 베르텔스만이 미국 랜덤하우스를 인수하고 반즈앤노블의 온라인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아마존 공략에 나섰다.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멀티미디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 등이 이슈였다. 밀교적

경향의 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다이애너의 붐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내년에는 르윈스키의 바람이 불어오리란 예측이다. 독일 역사를 장식한 올해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전을

담은 정치적 서적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한 사민당 인사들의 자서전류 출간이 줄을 이었다. 한가지 해프닝은 한 출판사가 수상이 된 슈뢰더 자서전 출판을 준비하면서, 선거에 이길 경우와 질 경우에 대

비하여 두가지 상이한 판본 《정상으로의 길》·《실패자 슈뢰더》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독자들은 한가지 판본만 접하게 됐다. ◆

한 《적》에서 75세를 맞이한 노교수의 허물어져가는 의식을 섬뜩하게 묘사하여 공포와 공감을 자아냈다. 사카가미 히로시의 《게이타의 선택》은 50대 중반을 넘긴 남성 직장인의 우울한 내면세계를 담백하게 그려낸 수작.

전후 일본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다무라 류이치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시집 《1999》, 환감을 눈앞에 둔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 주옥 같은 에세이를 남겼던 이탈리아 거주 작가 스가 야쓰코의 타계 후에 발간된 《시간의 파편들》, 《먼 아침의 책들》도 많은 일본 독자들을 아프게 만들었다.

추리소설은 여전히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하야카와 포켓 미스터리 시리즈 간행 45주년을 맞아 그동안 이 시리즈에 포함된 1560권의 책을 해설한 《하야카와 미스터리 총해설목록》을 간행했다. 날로 치열해지는 판권 입수 경쟁 속에서도 일본 출판사와 독자의 미스터리 열기는 식지 않았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전집은 중앙공론사의 《일본의 근대》(전16권)와 길천홍문관에서 발간된 《뉴히스토리 근대 일본》(전20권)이었다. 전자는 연대별로, 후자는 공간·상징·식민지·미디어·교육 같은 주제별로 참신한 접근을 시도했다. 또 교토대학출판회에서는 400권을 목표로 한 서양고전총서 1기 15권을 완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늘에 관하여》, 갈레노스의 《자연의 기능에 관하여》, 세네카의 《비극집》 등이 줄줄이 수록됐다.

사전 편찬작업도 부지런히 이뤄졌다. 일본을 대표하는 국어사전 《광사원》 5권이 10월에 이와나미 서점에서 간행됐다. 또 올 봄에 간행된 일본 동서양 철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암파 철학사상사전》은 일본이 서양의 아류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줬다. ◆

일본

떠들썩한 극우 남성미학과 진보진영의 공방

이희재

번역가

미국의 패권주의는 올 한해 일본의 우국지사들을 격분시켰다. 《선전포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경제》에서 이시하라 신타로는 정말로 어느 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계 공황도 불사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일본의 신진 극우논객 후쿠다 가즈야가 《근대의 구속, 일본의 숙명》, 《안이나 밖이나 머저리 천지》, 《일본인이라는 것》을 잇따라 펴내 서구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의 진보 지식인들은 (실천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약골들이라고 맹공하면서, 일본은 대동아전쟁의 전쟁 가해 책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전범인 도조 히데키를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 《프라이드, 운명의 순간》은 후쿠다의 지향점이었다. 그러나 미시마 유키오와 동성에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후쿠시마 지로의 고백기 《검(劍)과 한홍(寒紅)》이 출간돼 일본의 우익들을 썰렁하게 만들었다. 불행중 다행이었던 것은 미시마가 여전히 남성 역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의 진보 진영도 가만히 있지

는 않았다.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내셔널리즘과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양심적 인사들은 '자학사관'을 벗어던지고 '자유주의' 사관으로 나아가자는 일본 우익의 거만한 주장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반면 일본 여성학계의 선두주자인 우에노 치즈코는 《내셔널리즘과 젠더》에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면 서 진보학계를 공격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본에서 리버럴리즘의 보편적 원리를 도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장 사회학자 미야타이 신지는 《성의 자기결정 원론》에서 공동체·전통·질서·타락 운운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기성세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자기결정》의 권리 소재를 둘러싸고 때로는 교육학자와 때로는 페미니스트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한해를 바쁘게 살았다.

논픽션의 천국인 일본에서 올 한 해 눈길을 끈 책은 이와세 다쓰야가 쓴 《신문이 재미없는 이



논픽션의 천국인 일본에서도 언론의 특권의식과 언론유착을 비판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유》였다. 이와세는 잡지 기사를 우습게 보는 일간신문 기자단의 특권의식, 타락과 담합을 무섭게 파헤치면서 이것이 언론유착, 비판성과 공정성의 상실로 귀착된다고 고발했다.

올해의 아쿠다가와상은 늘 새로운 문체 실험으로 주목받아온 후지사와 슈의 《부에노스아이레스 0시》와 아웃사이더의 시각으로 일본사회를 고발한 신에 하나무라 만게쓰의 《게르마늄의 밤》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제일 작가 양석일도 《피와 뼈》로 야마모토슈고로상을 받아 건재를 과시했다. 원로 작가 중에서는 절필선언으로 유명한 쓰쓰이 야스타카가 오랜만에 발표